

1. <보기>에서 고려시대 과학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토지 측량 기구인 인지의와 규형을 만들었다.  
 ㄴ.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ㄷ.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모아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ㄹ. 중국산 약재를 우리나라 약재로 대체하기 위해 『향약구급방』을 펴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2. <보기>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고려는 통일 전쟁기에 귀순한 성주(城主)의 자제를 중앙에 머물게 하고 예우했다. 이것은 귀순에 대한 포상을 의미하지만, 해당 성주가 다시 이탈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방안이기도 했다. 성주의 후예들이 향리로 자리잡으면서 자제를 중앙에 머무르게 하는 것도 제도화되었는데, 이것이 곧 (가)이다.

- ① 향리의 지위가 하락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처우가 크게 개선되었다.  
 ② 정부 관청의 재정 확보를 위한 개간 사업에 동원되거나 관청의 잡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③ 실질적인 역할은 이미 고려 말에 유명무실해졌지만, 명목상으로는 19세기까지도 존재하였다.  
 ④ 고려 중기부터 외관 파견이 증가하고 외관이 점차 지방 행정을 주도하게 되면서 필요성이 보다 커졌다.

3. 우리나라 그릇 제작의 발달 과정 및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라와 가야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토우와 토우 장식의 토기들은 고구려·백제와 구별되는 신라와 가야 고분 문화의 특징이다.  
 ② 고려시대 청자의 상감 기법이 극도로 발달한 결과 상감청자의 소비는 최상층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널리 확산되었다.  
 ③ 분청사기는 기본적으로 표면에 백토를 바르고 그 위에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하였다.  
 ④ 조선 전기 청화백자 제작 안료인 회회청은 극히 귀하여 중국을 통한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4. <보기>의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이/가 일어나자 조선 전체는 미연히 호응하여 어떤 사람은 단체나 조합을 조직하며, 어떤 사람은 새로운 생산 방법을 생각해 내어 그 생산품을 성황리에 판매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그 운동을 선전하며 그 실행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다. …… 지금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이 운동에 대한 약간의 회의와 비평이 들리고 있다. …… 이 운동에 대한 반대 측 의견을 종합하건대 크게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일본인 측이나 관청 일부분에서 이 운동을 일종의 일본 제품 배척 운동으로 간주하고 불온한 사상이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소위 (나) 가운데 일부 논객이 주장하는 것인데 이 운동은 유산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무산계급에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 유산계급만의 운동으로 남겨 버리자는 것이다.

- ① (가)가 처음 시작된 곳은 평양이었다.  
 ② (가) 세력은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세 철폐를 반대하였다.  
 ③ (나)는 3·1운동을 주도하였다.  
 ④ (나)는 치안유지법 제정 이후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5.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고구려가 장안성으로 천도하였다.  
 ㄴ.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였다.  
 ㄷ. 신라가 나·제동맹을 파기하고 한강 하류지역을 기습 공격하여 차지하였다.  
 ㄹ. 『삼국사기』에 따르면, 가야가 신라를 배반하여 진흥왕이 이사부에게 가야를 토벌하게 하였다.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ㄷ - ㄹ - ㄱ  
 ③ ㄷ - ㄴ - ㄹ - ㄱ  
 ④ ㄹ - ㄱ - ㄴ - ㄷ

6. <보기 2>의 (가)~(라)에서 <보기 1>의 밑줄 친 ‘반란’이 일어난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1>

청해진의 궁복(弓福)은 왕이 자신의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청해진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장차 그를 토벌하자니 예측하지 못할 환난이 생길까 두렵고, 그대로 두자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어서, 우려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무주 사람 염장이란 자는 용맹하고 씩씩하기로 당시에 소문이 났는데, 와서 아뢰기를, “조정에서 다행히 신의 말을 들어주신다면 신은 한 명의 병졸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맨주먹으로 궁복의 목을 베어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의 말을 따랐다. 염장이 거짓으로 나라를 배반한 것처럼 하고서 청해진에 몸을 의탁하였다. 궁복은 힘센 무사를 아끼던 터라 아무런 꺼림이나 의심도 없이 이끌어 상객(上客)으로 삼고, 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매우 기뻐하였다. 술에 취하게 되자 궁복의 칼을 빼앗아 목을 베고서 그 무리를 모아놓고 설득하니, 굴복하여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보기 2>

	(가)	(나)	(다)	(라)
녹읍 부활	96각간의 난	독서삼품과 실시	김헌창의 난	원종· 애노의 난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7. <보기>에서 1938년에 공포된 『제3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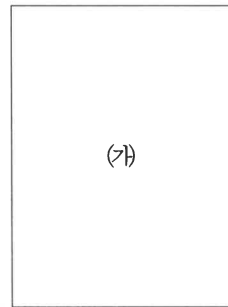
- ㄱ.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ㄴ. 고등보통학교의 명칭을 중학교로 바꾸었다.  
 ㄷ. 조선어 교과는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전락하였다.  
 ㄹ.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8. <보기>의 (가)에 들어갈 문화 유산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시대의 문화 유산



<건축>



<회화>



<불상>



<화엄사 각황전>



<심원사 보광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9.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한국광복군이 버마(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다.  
 ㄴ.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였다.  
 ㄷ.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 1지대로 편입되었다.  
 ㄹ.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무위원제를 주석제로 변경하였다.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ㄹ - ㄴ - ㄷ - ㄱ

10. <보기>의 (가) 또는 (나)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예조에서 상서하여 사전(祀典)의 여러 조목을 진달(陳達)하였다. “…… 종묘에서 제사를 받드는 것은 5실(室)에 그치는데, 전조(前朝)인 고려의 임금 가운데 제사하는 것이 8위(位)에 이르니, 예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조 이하 7위 안에서 (가) 은/는 요나라의 외적을 능히 몰아내어 백성의 피해를 없앴고, (나) 은/는 능히 명나라에 사대하여 민생을 안정시켰으므로 동방에 공이 있으니, 의리상 태조와 함께 제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나머지 5위는 없애도록 하소서.”

- 『태종실록』 -

- ① 성균관을 중영(重營)하였다.
- ② 건원중보를 주조하였다.
- ③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④ 연등회와 팔관회가 부활하였다.

11. <보기>의 조약을 맺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이 장정은 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 간의 일체 동등한 혜택을 받는 예와는 다르다.

제1조 청의 상무위원을 조선의 항구에 주재시키고 조선 국왕도 대관을 텐진에 주재시킨다. 청의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제4조 베이징과 한성, 양화진에서 상점을 열어 양국의 무역을 허락하되, 양국 상민의 내지 행상을 금한다. 다만 내지 행상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 ①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 ②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 ③ 시전 상인들이 철시 운동을 벌였다.
- ④ 구식 군인들이 임오군란을 일으켰다.

12. 조선 후기에 나타난 도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확량의 절반을 지대로 납부하는 방식
- ② 토지의 수확량을 결부법에 입각해 납부하는 방식
- ③ 일정 액수의 지대를 곡물이나 화폐로 납부하는 방식
- ④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한 제도

13. <보기>의 역사관을 가진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이 계열의 역사학은 한말 민족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사에서 제기되었던 반봉건·반제국의 민족적·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역사학의 측면에서 기여하려고 하였다. 역사연구 방법론을 기준으로 이 계열의 역사학은 유심론사학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이 역사학에서는 역사의 원동력을 정신적인 것에서 구했기 때문에 사회발전을 역동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 ① 문일평은 과학연구를 통해 민족 문화의 발전 과정을 살폈다.
- ② 정인보는 조선학 운동을 통해 민족 학문으로서의 실학을 발견하였다.
- ③ 박은식은 혼의 상징인 국사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 형체인 나라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혼론을 주창하였다.
- ④ 신채호는 부여·고구려 중심의 고대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족 고유의 사상으로 낭가사상을 강조하였다.

14. 유교가 전래된 이후 정치와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라의 임신서기석에 두 청년이 『시경』, 『상서』 등 유학을 공부한 사례로 보아 유교가 신라사회에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설총이 지은 『화왕계』는 임금의 도를 밝히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유교적 정치 사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 ③ 고려 전기 과거제를 실시하고 최치원 등을 문묘(文廟)에 제사한 것은 유교가 국가를 다스리는 이념으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 ④ 조선 전기 사림들의 도학운동은 수양을 위한 도덕과 예법의 실행이었고, 그 근거로 『대학』과 『예기』의 실천을 강조했다.

15.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국 문헌 중에서는 『관자』에 고조선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 ② 중심지의 위치에 대해서는 평양 위치 설, 초기에 요하 유역에 있다가 기원전 3세기 전반 이후 평양으로 이동했다는 설 등이 존재한다.
- ③ 『전국책』에는 연나라 소왕(B.C. 311~279) 이전 시기에 고조선과 연나라가 서로 각축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 ④ 한나라와의 충돌 끝에 기원전 108년, 수도인 왕검성이 함락되고 4개의 군이 설치되었다.

16. <보기>의 조선시대 기보법(음의 고저와 장단을 표시해 음악을 기록하는 방법)이 만들어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오음약보(五音略譜)  
 ㄴ. 정간보(井間譜)  
 ㄷ. 합자보(合字譜)

- ① ㄱ - ㄴ - ㄷ  
 ② ㄴ - ㄱ - ㄷ  
 ③ ㄴ - ㄷ - ㄱ  
 ④ ㄷ - ㄴ - ㄱ

17. <보기>의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홍무제는 표전의 언사로써 자신을 우룡했다고 하고 (가) 이/가 이에 연루되어 입조할 것을 명하였다. (가) 이/가 병이 났다고 일컫고 가지 않았는데, 장차 죄를 묻는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임금에게 계책을 올리며 “군사들은 병법을 알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마침내 진도(陣圖)를 찬술하여 올리고, 여러 도의 절제사와 군사들로 하여금 약속을 정하여 급히 연습하게 하고 사졸을 매질하니, 사람들이 이를 많이 원망하였다.

- ① 『조선경국전』을 지었다.  
 ② 『기사실기』를 편찬하였다.  
 ③ 『예기천전록』을 저술하였다.  
 ④ 『성학십도』를 작성하여 왕에게 바쳤다.

18. <보기>의 (가)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관풍루 부성(府城) 안에 있다. 김수온의 기(記)에는 “전조(前朝)인 고려의 공민왕은 적의 침구를 피하여 남쪽으로 거둥하다가 이 고을에 머무르면서 장수에게 명하여 군사를 출동시켜서 싸워 이겨 경성(京城)을 수복하고 임금의 행차가 개경으로 돌아갔다. 그 큰 계책이 여기에서 대명(大命)을 정하여 능히 다시 대동(大東)을 안전하게 하였으므로, 고을 이름을 (가) 라고/이라고 내렸으며, 대도호부로 승격시켜 영남의 모든 고을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게 한 것이다. 이때부터 부의 이름난 성씨와 거대한 가문들이 중외에 빛났으며, 장수나 재상의 지위에 이르는 자가 어느 시대에도 끊이지 않았다.” ……

- 『신증동국여지승람』 -

- ① 봉정사                      ② 불국사  
 ③ 도동서원                  ④ 소수서원

19. <보기>의 글을 지은 국왕이 재위하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달은 하나뿐이고 물의 종류는 일만 개나 되지만, 물이 달빛을 받을 경우 앞 시내에도 달이요, 뒤 시내에도 달이어서 달과 시내의 수가 같게 되므로 시냇물이 일만 개면 달 역시 일만 개가 된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달은 물론 하나뿐인 것이다. …… 거기에서 나는, 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달이 비취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사람들 각자의 얼굴이고, 달은 태극인데 그 태극은 바로 나라를 알고 있다.

- ① 국왕이 직접 현릉원지문을 지었다.  
 ② 신하를 충신과 역적으로 구분한 『천의소감』이 편찬되었다.  
 ③ 『경종실록』을 수정한 『경종수정실록』이 간행되었다.  
 ④ 구선복이 왕족인 상계군을 추대하려는 역모를 꾸몄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20. <보기>에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위원장은 김상덕, 부위원장은 김상돈이었다.  
 ㄴ. 1948년 정부 수립 직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됨으로써 구성되었다.  
 ㄷ. 화신백화점의 총수 박흥식, 천도교의 최린 등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ㄹ. 엄밀한 조사를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공소시효가 연장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